



안녕하세요. 이은영 수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좋아하는 만화 영화 <캔디>에 나온 마가렛 수녀를 보며 막연하게 수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 중학생 때부터 본당 수녀님이 주최하는 성소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녀회가 철수하고 사랑의 씨앗 수녀님들이 오시면서 성소모임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씨앗 수녀님들의 밝은 모습과 따뜻한 마음에 끌리기도 했지만, 베일을 선망하던 제게 모자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실 베일을 쓸 수 있다면 수녀회 입회를 안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그래서 성소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때’가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날 소임

이동으로 본당을 떠나던 수녀님이 “모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성소모임에 한번 와보면 어때요?” 라고 초대하셨고, 그 말씀이 인연이 되어 1999년에 입회를 하고 2009년에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입회 후 2년수련자 때 신학교 과정을 2년 수료하고, 본당, 피정, 성소

자담당 사도직을 했습니다. 그 후 나머지 신학교 학부과정을 마치고 현재 본원에서 내부관리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수녀님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성자 작업시간의 작업 배정, 수도회 행사준비, 대청소, 차량관리, 난방관리, 물품 및 약품구입 등입니다. 집안 살림을 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그동안 제가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띄게나

띄지 않거나 수많은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녀님들의 필요에 가능한 성실히 응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전체구조와 기계 설비에 대한 이해 부족은 끊임없이 저를 배움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내부관리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외부인들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관리장님과 일을 조율하면서 제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재촉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직이 그렇겠지만 내부관리는 ‘끝나지 않는 길’ 같습니다. 제가 내부관리 사도직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이것도 관리가 해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씩 일을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수녀님들이 함께하기 때문임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제가 그 감사함을 기억하기 때문에 공동체수녀님들과 더불어 수도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수도생활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늘 지혜로운 선택들을 통해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Hello! I am Sister Lee, Eun Yeong. When I was young I liked the cartoon movie “Candy”. Watching “Sister Margaret”, one of the characters in the animation, I wanted to be a sister. After my baptism, I joined a vocation meeting when I was a middle school student led by sisters in my parish. Later, those sisters withdrew and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came to the parish. Then I stopped going to the vocation meeting.

Even though cheerful and warm hearted Sisters of Charity attracted me, their black caps were unfamiliar to me, the veil of other sisters was always the desire of my heart. At that time, I thought that if I could wear a veil, I would enter a religious community. That’s why I didn’t join the vocation meetings of Sisters of Charity. Now I know that it was not the time of God. One day, a sister who was about to change her ministry said to me, “Do not ignore the black cap. Why don’t you join the vocation meeting?” Her invitation led me to the Sisters of Charity.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99 and professed perpetual vows in 2009.

When I was a second year novice, I went to seminary for two years. After completing my sophomore studies in the seminary, I had ministries at parishes, a retreat center and as a director of vocations.

Then I studied theology in the seminary again and graduated.

Now I am the manager of

the provincial house housekeeping and maintenance. My ministry is to make sure that sisters do not have any inconvenience in their living at the provincial house. I do various works: assign some work that get initial formation sisters involved in taking care of our community; prepare congregational events and annual house cleaning; manage vehicles and a heating system and buy goods or over-the-counter drugs. First of all, I found that I could do my ministry without big difficulties thanks to helping hands from many sisters even

behind the scenes. I also strive to respond their needs sincerely. However, the lack of full understanding about the whole structure and equipment of the building is constantly leading me to learn many things.

All is made up of light and shadows, as you know. One of the challenges in my ministry is relationships with people outside of the community. Especially, cooperation with the chief of staff of maintenance encourages me to judge and act wisely. Maintenance service for the community seems like “a never-ending issue”. During this ministry, I have often said is “Is this my job, too?” As time goes by, however, I have deeply understood that each work is completed because sisters work together in community.

Remembering my gratitude to the sisters, I could live out my religious life happily with our sisters.

Now I wish that the guidance of God leads me to make choices with wisdom and go forward to light, not darkness. Therefore I want to live my life as “a woman of God”.

